

원칙 준수는 곧 신뢰 획득으로 이어진다!



▲ 김정민 대표

부친 사업 이어 국내 최대 규모 중추농장까지

김정민 사장은 육용종계를 시작으로 부화, 산란중계장을 경영했던 부친 김교석 사장을 도와 군 제대 후 1980년 중반 충북 음성농장에 산란실용계 3만수를 사육하면서 하루 약 2~3만 여 개의 계란을 3년간 유통하며 산란계분야에 첫 진입 했다.

본 회 전 부회장으로 활동하신 김교석 고문은 1980년대부터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서 종계와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큰 사육규모를 유지했다. 김교석 고문의 장남인 김정민 사장이 지난 1990년대 중반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인 전문 육추육성 농장으로 거듭났고, 현재 산란중추 사업에서 국내 큰 규모를 유지하면서 그간 추진 경위와 양계사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1996년 본격적으로 부친의 사업을 이어 당시 산란계 중추 20만수 규모로 사육했다. 초기 산란중추 20만수로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해 열풍기 폭발 사고로 병아리 약 5만수가 있는 계사 1개동이 모두 전소하면서 4억 가량의 피해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간의 노하우와 성실함으로 노력한 결과 2000년부터 현



▲ 계사외벽에는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꾸미고 주위는 꽃과 나무가 가꿔져 있어 타 농장과 달리 친환경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위), 이천시 장호원에 위치한 사무실 내부(아래)

재는 충북 음성에 9개동을 두어 국내 최대의 규모로 경영하면서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좋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원칙 준수는 곧 신뢰로 이어져

우화농장은 장호원읍에 사무실을 두고, 충북 음성 용산리에 제 1농장, 음성 감곡면에 제 2농장을 둔 산란 전문 육추육성 농장이다.

계사는 무창 직립식 자동화 시설로 설비되어 올인-올아웃의 체계를 기본 원칙으로 한 동이 아닌 농장 전체에서 올아웃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김정민 사장은 질병 근절에 있어 그 어떤 소독이나 백신보다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우화농장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중추시 닭의 일령별 체중관리와 중추 출하시기의 중요성 강조에 있다. 일반적으로 78~80일령에 조기출

하하면 빠른 회전율로 짧은 기간 안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 우화농장은 90~100일령(13~14주령)까지 충분히 키워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4년도에는 실험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병아리가 질병 뿐 아니라, 완벽하게 사육이 됐는지 자체 평가하기 위해 분양 시 적정수수를 실험농장에 두고 육성이 적절히 잘 되는지 60~70주령까지 키워 계군별 역학과 산란을 검사를 통해 자체 관리에도 꼼꼼히 신경 쓰기도 했다.

김정민 사장의 사양원칙에 대한 고집으로 중추를 구입하는 농가들은 항상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기자가 방문한 5월 초 당시에도 9월까지 전국각지의 주문이 밀려있어 품질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정민 사장은 질병부분에 있어서는 차단방역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우화농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란계 중추는 충북 음성, 감곡농장의 9개동에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사육되고 있고, 사무실은 농장에 두지 않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두어 외부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장호원은 김교석 고문이 농장 경영 활동 당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이곳에 자택과 사무실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양계인들과 정보 교류의 장 만들 것

김정민 사장은 KRC(Korea Research Control) 회원으로 현재까지 양계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친목회로 일본사료회사에서 배합비를 공수해 OEM 사료를 공급받아 생산비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KRC

는 애초에 경상도 지역 중심의 친목회였지만, 현재 KRC 총무인 김정민 사장이 들어섰던 1996년부터, 점차 전국의 양계인들이 모임으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지역별 양계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김 사장은 음성계우회 회장으로 지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는 음성지역에서 수당 10원씩 책정해 580여만 원의 자조금을 거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지역에서 시식회 행사 등을 통해 양계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밝혔다.

한편, 충북지역은 육계가 활성화 된 반면 채란계는 자체 모임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충북지역 채란계 규모는 약 300만수로 지역내에서 양계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하고, 협조하는 분과를 만들기 위해 김정민 사장이 적극 추천되어 올해 초 충북도지회 채란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양계발전을 위한 준비 갖춰

대내외적으로 깊은 관심으로 양계발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자는 마인드로 김정민 사장은 지난 2004년에는 본회에서는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위한 세부계획을 위해 F/T팀을 구성했을 당시에도 위원으로 참석해 양계분야에 산란계 부문 사양과 유통수급에 대해 진행한 바 있다.

최근 FTA, DDA 등 축산업도 점차 세계화로 접어들면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양계인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과 개발을 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농가가 함께 움직여야 국내 양계업 발전할 것

또한 최근 발생한 AI로 양계산물 소비 감소 위



▲ 우화농장 김정민 대표(좌)와 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신 부친 김교석 고문(우)

협이 높아만 가고 있다. 김 사장은 부정적으로 탓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현 상황을 직시하고, 70~80년대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양계산물 생산에 가담하자고 전한다.

한편, 쿼터제 해지 후 과잉생산에 따라 생산자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상가상으로 4월초 AI 발생에 따라 계란 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DC거래폭도 크게 증가해 생산원가 이하를 밀돌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끝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의 도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김정민 사장의 생각은 다르다. 유정란 생산, 각종 약재를 급이한 특허란 생산은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에서 할 수 없는 소규모 사육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기에 모두 공생하는 양계농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리 | 장성영 기자)